

## 한국수력원자력(주)

### 지역공동체 경영정책 해외사업 적극 추진



이 중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올해 사업 목표로 안전성과 설비신뢰성 제고, 지속적 경영혁신, 지속가능 성장에너지 확보, 국민친화 기업상 정립을 모두로 지역공동체 경영 정책과 해외사업 추진을 강력한 성장엔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인원 7,400여명으로 총 21조의 자산을 보유 명실 공히 국내 최대 전력 회사인 한수원의 올 당 기준의 목표는 7,789억원이다. 원자력 20기 1만7716MW, 수력 27기 535MW를 보유해 국내 발전설비용량의 29.3%를 보유한 한수원은 41%의 발전량으로 국내 중추 전원 공급원으로 서의 역할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원자력 기술과 한국표준형원전 수출 등 해외사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세계 최우수 전력회사를 일궈나갈 계획이다.

안전 최우선 경영은 한수원의 최대 가치로, 안전문화 확산과 의식 제고사업은 지역공동체경영과 함께 가장 역점을 두는 멘탈 사업이다. 따라서 한수원은 안전 심포지엄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의

식 제고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정비 경험을 전 원전으로 전파하고 인적 실수 예방을 위한 절차를 생활화하고 해외 선진원전국의 안전실수 예방기법 사용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주기기 재료 열화관리체계 구축과 증기발생기 통합관리, 탄소강 배관관리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발전기와 주전력계통 개선, 제어봉제어계통 국산화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전문가 4명을 포함 엔지니어링 정착팀을 구성해 선진 엔지니어링기술 제도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와 건설분야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 선진 경영혁신기법 도입, 전략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분부별 책임경영제 정착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근무 분위기 활성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계화된 혁신실천시스템인 BEST KHNP 운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경영혁신 10대 핵심과제와 50대 중점과제 발굴을 추진해 중장기 전략과제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경영으로 원전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지역 지자체의 각종 행사지원과 봉사활동 등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을 실시해 원자력에 대한 우호적 기반확보와 우수인재 확보사업을 착실히 벌여 나갈 계획이다.

## 한국남부발전(주)

###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 자재관리 효율극대화

한국남부발전(주)는 올해 사업목표를 구매와 자재관리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관리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기자재 등 조달 예산을 절감해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유연탄의 수급 안정화를 강화하고 LNG 직도입을 추진해 발전연료의 공급안정화를 꾀하고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시 혁신체제를 구축을 위해 1단계로 계약과 자재분야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완수하고 2단계로 혁신과제 발국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여 구매와 자재관리의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Pro-MAS시스템을 대체할 최신의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각종 사내 전산프로그램과의 완벽한 호환성과 결재기능을 보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명하고 경제적인 조달을 구현하기 위해 조달 예산 절감노력 강화와 적극적인 계약관리업무를 시행하고 투명한 조달행정 구현과 윤리경영을 실현한다.

조달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확대를 통한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구매가격을 유지, 입찰참가 자격 완화를 통한 경쟁참가의 확대를 유도하는 등 올해 절감목표는 지난해 목표보다 50억원 증가된 200억원으로 정했다.

신규발전소 건설계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동 7, 8호기 건설관련 9개 사업 보조기기, 제



김 상 갑 사장

주한경풍력 2단계와 성산풍력, 태백풍력 사업 기자재의 경제적인 조달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연료조달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유연탄 수급의 안정성 강화와 연료 구매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LNG 직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유연탄의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말 3국 7개사에서 지난해 말 3국 14개사로 확대하고 선적항과 계약기간 등 공급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 하동 7,8호기 건설관련 신규 공급선을 지속 개발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협상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유연탄 공급은 호주탄이 40%, 중국탄 25%, 인니탄 30%, 기타 5%의 비율로 장기계약 비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울러 연료위험관리위원회 활성화로 연료수급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월 1회 연료위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분기마다 유연탄 품질실무협의 회 운영으로 연료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 한국중부발전(주)

### 미래지향 경영혁신 블루오션 사업 적극 개발



정 장 섭 사장

한국중부발전(주)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미래지향의 경영혁신 지속 추진, 블루오션 사업 적극개발 및 참여, 노사화합을 통한 조직창의성 제고, 설비신뢰도 향상 및 효율성 제고, 건설사업의 적기추진 및 선진화, 선진 글로벌경영시스템 정착과 확산,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크게 7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블루오션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글로벌 시대를 겨냥하고, 최근 화두로 떠오른 환경경영과 발전전문회사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사업 1020'으로 국내 사업과 해외사업의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 블루오션 전략의 신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확대한다. 이를 통해 10년내 총 매출액 20%를 달성하고 세계 일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창출과 발전운영 기술의 수출 등 해외 발전

사업에 집중한다.

발전설비 120만kW 중국 구리산 발전사업은 오는 6월 비준획득하고 9월 법인설립, 10월에 착공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해외사업 기반구축을 병행 추진하여 이라크 발전분야 전후 복구지원과 쿠웨이트 에너지성 공무원 수탁교육, 동남아·중동지역 전문가 양성 등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시범사업도 확대 강화하고 중장기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 오는 10월에 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또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12월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집합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여기에 태양광 10~100kW, 풍력 50kW급, 연료전지 3~50kW를 조성한다.

또 양구 풍력과 양양소수력 등의 연간 6만 3000톤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위한 국내외 발전사업의 CDM 사업을 오는 6월에 추진하고, 오는 12월엔 해외동향과 탄소시장 활용계획, 규제시나리오별 전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중장기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이올러 올해 신규사업 확충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신규사업 추진 조직의 확대 개편, 인력을 보강한다. 또 기술연구개발은 지난해 38건 23억원에서 올해 46건 59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해외사업 관련 규정제정과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전직원의 5%를 해외발전사업 중추인력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 한국남동발전(주)

### 성장동력 확보 조직문화 혁신 새로운 도약

한국남동발전(주)는 미래 발전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Global Power Leader 201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 지속 성장기반을 구축키로 하고 그 핵심에 BEST 혁신인 프로세스 혁신 성장동력 확보, 조직문화 혁신, 기술기반 혁신 등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제시했다.

이 사업은 SM(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체제를 도입해 수익성과 환경 건전성,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에 적합한 전략과 지표를 개발한다. 또 지난해 한국생산성본부가 인증하는 PMS(생산성 경영체제) 5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올해는 국내 최고수준인 7등급, 내년에는 글로벌 수준인 8등급으로 끌어 올린다.

또한 발전소 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축기술을 개발하여 올해 초 3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영흥화력 3, 4호기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흥화력 1, 2호기의 설계개선 사항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공사 기간을 준수할 계획이다.

예천양수1,2호기 건설사업은 지하발전소와 상부 하부댐의 시공을 본격 시행하고 공사현장에 CCTV를 활용해 원격 공사감독으로 시공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적단 제어와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신공법을 개발하고 친환경설비 및 기술을 발굴한다. 또 영흥화력 1, 2호기 사업비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후속기 표준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박희갑 사장

남동발전의 노후화된 발전소는 설비개선을 통해 신규 건설비의 20%를 투자, 20년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중장기 설비개선 대책으로 삼천포하력 1, 2호기는 고·중압터빈 등의 교체를 통해 1%의 효율과 13MW의 출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신재생에너지 개발협약) 이행과 안정적인 연료조달의 기반구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분당복합화력에 205kW 연료전지발전 상용화사업과 영흥화력 1MW급 대용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호주지역 등 2개 광산에 대한 해외유연탄 광산개발에 적극 나선다. 또한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소분야 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차세대 화력발전소 건설기술을 습득해 개발하고 자체기술력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 한국동서발전(주)

### 경쟁우위 확보 수익중시 경영체제 조기 정착



이용오 사장

한국동서발전(주)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수익중시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당기순이익을 1100억원으로 정하고 5년 연속 증가 기록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장 정지의 최소화 및 신규발전소 조기 준공, 입찰용량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전력거래 수익을 증대시키고 석탄회·석고 재활용 등 부가수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혼탄기술을 확대하고 저원가 대체탄을 적극 발굴, 계획예방 정비공사 최적화와 가치공학기법으로 발전소 건설원가를 절감, 신규사업 추진시 경제성과 기술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용자산 조기매각 등 현금흐름 개선 방안을 강구해 투자자본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실시간 분석해 저금리 채권발행을 추진하고 강도높은 자구책을

강구, 부족자금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양질의 차입금 조달을 통한 금융비용을 최소화 한다.

또한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한 자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 딜링제도를 이용해 외화 저가매입을 통한 딜링이익을 창출하고 환율변동성을 이용해 최적시점 외화지급으로 환차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설비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소별 '중장기 경쟁우위 확보방안'을 수립해 운영하고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당진화력과 울산화력에 이어 올해는 전 사업소에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선진경영시스템의 조기 정착에도 집중하고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모형을 개발,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한 조직진단과 외부컨설팅을 통한 조직설계를 추진해 동서발전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운영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비전과 전략의 연계강화와 팀단위 평가보상시스템인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한다. 특히 직무권한 위양과 성과보상 강화로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부장급 KPR(Key Performance Report)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내부경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해 운영하고 윤리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아울러 윤리경영 평가시스템 개발과 자가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서부발전(주)

### 발전설비 효율 극대화 21세기 발전산업 리더

한국서부발전(주)는 올해 사업 목표를 경영혁신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 발전소의 무고장 운영을 대폭 강화, 발전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21세기 발전산업을 리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고장 운전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발전설비 무고장 운전 추진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설비별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 등 4개 분야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아이템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장·단기 발전설비의 예방정비를 강화하며 발전 6사의 고장사례 원인을 공유해 유사사고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외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OH호기를 우선으로 취약설비의 정밀진단을 시행한다.

설비관리와 현장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태안화력 1~6호기의 보일러 통풍설비 제거장치를 개선하는 등 13건의 설비보강을 시행하고 실시간 운전 지원 시스템 등 4건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 3월부터 11월까지 설비관리모델 구축을 통해 예비진단과 혁신과제를 수행하며 다중잠금장치 등 설비관리 신기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기터빈 재질별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술 인력을 전력연구원에 파견,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사업소와 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무메뉴얼을 제정하여 수요급증과 계통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대응책과 사업소별 위기



김 종 신 사장

대응 시나리오 유효성 평가와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보험사 방해전문가를 활용, 발전소 위험진단을 실시하고 난연성 벨트를 교체하는 등 태안 석탄취급 설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전설비를 적기에 설치키로 하고 태안과 평택화력 질소산화물(NOx) 저감설비, 평택에 삼산화황(SO3) 저감설비 설치, 정부정책과 연계해 온실가스 처리기술 등을 개발해 배출권 거래제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스템을 7월에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기술 3건을 적용한다. 또 전문가의 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 손실요소를 발굴, 원가저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전기공(주)

### 선진외국사와 기술협력 강화로 일류정비회사 도약



함운상 사장

발전설비 전문서비스사인 한전기공(주)는 종합 정비능력 확충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고객이 원하는 완벽 장비서비스 제공,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영역 확충, 경영혁신 정착화로 나눔경영 실천을 슬로건으로 성장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원자력을 비롯 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와 계획 예방정비는 물론 신설발전소의 시운전 등 발전설비 종합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전기공의 경영목표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고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충, 전문기술인력 육성, 첨단장비 활용 과학적 정비 등으로 세계 최고의 발전설비 정비회사로의 도약이다.

한전기공은 정비 품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1차 계통인 원자로 분야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가스터빈 수리 및 부품 재생기술은 제너럴일렉트릭, 가스터빈 로터 블레이드는 미츠비시와 알스톰 등 선진 기업과의 기술협력 강화로 핵심정비 기술을 조기 자립화해 나

갈 계획이다.

또한 고객 만족 극대화 차원에서 'Trouble Free, Value up' 운동과 고객접점 사례별로 서비스 표준을 마련 시행하고 고객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 고객만족 활동에 대한 성과를 검증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방침이다.

품질보증 활동 강화 차원에서 현장 품질 입회 검사를 강화해 협력업체의 정비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빈도가 많은 고장기기를 포함한 품질검사 대상기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ESCO 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 등 산업플랜트와 민간발전소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390억원을 수주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을 강화해 238억원의 수주를 올릴 계획이며, 특히 인도와 필리핀, 호주 등을 집중 공략국가로 선정해 기존사업과 연계한 신규 물량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은 지속개발시장으로 분류해 협력협정 체결 등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우디와 리비아, 파키스탄 등 7개국은 신규진입으로 현지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캐나다 등 원전국가에는 원자력 개발기술 용역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리핀과 호주에는 송변전설비 정비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리핀 국영송전회사 관계자를 초청해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지도를 제고시킬 방침이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경쟁력 강화로 블루오션 창출 고객 행복경영 추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경영목표를 중장기 경영전략인 VISION 'Happy Eneergy 2015'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 실천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업경쟁력 강화와 블루오션 창출', '고객행복경영 추구', '혁신의 성숙화'를 핵심 경영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비전인 종합 에너지사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 신안의 태양광발전사업 2단계 추진, 풍력발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수익성 있는 바이오매스 CHP 모델 등의 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또 사업관련 정부 지원정책 제도 정비 등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체결한 발전자회사와의 사업 상호협력 협약과 같이 타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동유럽 등 집단에너지 시설이 노후화된 해외 지역에 대한 진출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산업구조 개편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다수 민간사업자 출현 등 실질적인 경쟁시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를 고려한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 및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전략이다.

또 수원시 이의동 일대의 '광고테크노밸리(2만 4000호)'와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16만1000호)' 등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공



김영남 사장

급구역 및 수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김포 등 10개 지구(28만호)에 대한 신규사업과 기존지역의 1만 5000호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합리적인 요금제도 마련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대별 열요금 누진제도 도입과 국제유가 및 환율변동 등 원가 변동폭을 반영한 연료비 연동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난방에 대한 이해 및 합리적 열사용을 위해 기계실 관리자 교육, 수질검사 지원,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객민원 감소, 사용자 시설 안정성 확보로 고객만족 제고와 기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고객 만족을 통한 업무성과의 극대화과 조직 화합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주요업무에 대한 열린 토론마당 개최 및 사내 통신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 한국가스공사

### 경영환경 변화 대응으로 신 성장동력 확보 추진



이 수 호 사장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경쟁도입 등 변화에 대비하고 기존 천연가스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및 신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4대 부문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고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약 2340억원에서 투자비 증가 등으로 약 38% 감소한 1452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추진할 4대 중점사업으로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 미래성장 기반 구축, 마케팅 역량강화 및 해외사업 적극 추진, 안전·효율 중시의 설비 운영 및 건설 등으로 설정, 부문별 세부 내용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투자 부문에서는 인천, 평택, 통영 등 생산기지의 건설 등 생산설비에 약 5001억원, 공급설비에 1965억원, 경상설비 등에 4245억원 등 총 1조 121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LNG특소세 인상 움직임과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 적용 등 규제강화로 수익구조 악화와 신규사업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규제강화로 수익구조 등 경영여건이 악

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4대 부문에 집중화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가스공사 중장기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경쟁시장 대비 경쟁우위 확보 기반과 국내외 우호 네트워크를 구축,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시장 대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 국내외 에너지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경쟁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자가소비용 LNG직도입 제도를 정부와 협의하에 보완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신규 물량 도입참여를 통해 경쟁우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직도입에 따른 배관·제조 시설 공동이용 기반도 구축한다.

미래 신규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 사업성과 실현을 통한 미래성장기반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신규 사업으로 동시베리아 PNG 사업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 역량 강화, 통영 안정 발전사업 공동투자 등 발전사업, 가스공사 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스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CES 사업개발, LCNG 충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도 이후 신규 소요물량에 대한 적기 도입계약 체결, 발전용 도시가스 천연가스 매매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 등 장기도입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여 마케팅 역량강화와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티모르, 호주 등 공사 주도의 해외탐사 사업, 예멘 LNG지분 추가 인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중국 도시가스 사업 참여 등 경제성 있는 해외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할 방침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영역 다각화로 실용화 중심 신기술개발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영혁신 선도기업 도약 및 취약시설 점검강화로 가스사고 감소 추진 등을 포함한 사업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등 올해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목표로 검사업무 IT화를 통한 검사수준 제고, 취약시설 점검강화로 가스사고 감소 추진, 안전 교육 및 홍보의 내실화, 기술컨설팅 확대를 통한 사업영역 다각화, 실용화 중심의 신기술 개발·보급 추진, 경영혁신 선도기업 도약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향은 법정검사 수준제고, 검사업무 Mobile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IT화, 취약시설 개선 집중 점검 및 사고조사 기능 강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및 대국민 홍보기능 강화, 기술컨설팅사업 강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현장활용 중심의 실용화 연구 추진, 가스용품 검사·인증확대 및 ISO인증 다각화, 경영혁신 로드맵을 통한 혁신 최고 수준 진입 등 7개 항목을 설정했다.

가스시설·제품의 법정검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직렬 검사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검사수준을 향상시키고 검사장비 현대화의 조기 도입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장비와 최신 진단기법을 활용한 대형가스 시설의 안전도 제고,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발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심사 및 준수여부의 확인 평가를 통해 대규모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컨설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SMS(Safety Management



박달영 사장

System) 심사 및 평가기법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성 향상계획 심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기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스안전연구개발원의 독립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부설연구원 운영을 위한 회계제도를 정립하고 연구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자원 관리시스템을 보완 수립·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스용품의 성능과 안전도를 정밀검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제품의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험인증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기로 하고 ISO 인증사업의 영역확대는 국제적 인증기관으로서 KGS 18000/OHSAS 18001 동시 인증을 확대하고 식품안전경영체제 등 인증사업분야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혁신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윤리경영 및 지식경영체제를 강화하고 혁신마인드의 확산과 로드맵에 의해 혁신 최고 수준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 CES 및 지열에너지 사업 등 신규사업 적극 진출



신 종 현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올해 경상사업 증가 둔화에 대비해 CES사업, 소형열병합사업, 지열에너지사업 등 에너지관련 신규 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등 신 성장동력 발굴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가스설비 전문기업으로서 기술력 제고를 위해 평택생산지지내 공간을 활용, '한국가스기술교육원'을 설립해 체계적인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에너지기술연구팀' 활성화로 기술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역점 사업으로는 가스설비의 책임정비 수행으로 안전성 확보, 신규 성장동력 발굴로 수익구조 다변화,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품질경영 정착으로 고객만족 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업가치 제고 등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속적인 에너지사업 다각화와 신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전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전락사업팀의 역량을 강화해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영

업협정사와 프리랜서 제도를 활용해 대외사업 수주에 주력하고 사업개발처 조직을 재편성, ESCO 전담팀과 CNG 및 HT&P 전담팀으로 분류해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 수주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업 분야에서는 나이지리아와 카타르 프로젝트를 완벽히 수행하고, 신규사업 유치를 위해 인도, 칠레, 중국 및 중동지역의 PQ참여와 LNG 저장탱크 설계사업 참여, 베트남 및 러시아 사할린의 배관설계 자문용역 수행 등 해외사업분야 프로젝트 수주 및 참여로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수주를 위한 국내외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영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 기술교육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전문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정용 히트펌프, 승용형 연료전환 키트 등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LCNG충전시스템 등 설비의 국산화로 원가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성 플랜트, 지열 및 수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절전형 보안등 설치사업 등 신규사업 참여로 회사 자립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신종현 사장은 '그동안의 공기업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기술, 서비스, 직원 개개인의 역량 면에서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산업분야의 리더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석유공사

### 6대 핵심전략 거점화를 통한 해외 석유개발 박차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주요 경영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경영혁신체제의 확립과 함께 중장기적인 추진방향 제시를 통해 2009년 'HUNT 3-3-3'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대륙붕개발 및 해외석유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석유매장량 추가 확보 및 생산량 확대, 석유비축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국제석유 공동비축사업, 동북아 석유물류 Hub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도 국내 석유개발사업은 동해-1 가스전의 성공적이 생산 및 공급체계의 정착과 함께 대륙붕 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국내대륙붕 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이미 수립해 놓은 '국내대륙붕 중장기 종합탐사계획(2004-2013년)'을 토대로 매년 약 400억원을 투자해 2~3공의 시추 탐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유·가스 전 발견을 통해 국내대륙붕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 석유개발부문에 있어서는 대규모 생산광구 매입에 적극 나서 가채매장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주개발 원유확보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에 동남아시아, 카스피해, 중동, 서아프리카, 동북아시아, 미주 등 6대 핵심전략 거점화 추진을 통한 석유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지난해 나찰광구에 대한 계약협상 및 체결 추진, 기존 나찰 광구이외에도 핵심전략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및 개발, 생산광구 획득을 지속



황 두 열 사장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광구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이라크 석유성 직원 교육 훈련, 산유국 주요 인사초청, 국제 메이저사와의 협력 증진 등 거점지역의 국영석유회사 및 주요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관계 확대에도 역점을 두는 동시에 투자 지분의 대형화(10%→50%)를 통한 투자규모의 집중화 및 운영권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양호한 항만조건,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과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 거대 석유소비시장인 동북아의 석유공급 및 분배 Hub로 선점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저장시설 확충, 원유유치 등 물류활성화 기반조성을 통해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에는 금융, 법제 등 석유거래 및 시장활성화 여건 조성, 3단계는 동북아 석유현물시장 및 현물거래 위험회피를 위한 선물거래소를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중장기 추진 전략이다.

## 대한전기협회

### 대한전기협회 제41차 정기총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2월 24일 삼성동 한전 본사 회의실에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기만료 임원선임(안) 등을 통과시켰다.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전기협회는 박천진 신임 상근부회장 선임 이외에 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 GS 파워(주) 정천수 사장, 前 한전 정보화추진처 양한식 처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특히 양한식 처장은 협회 전무이사로 선출됐다.

기존 37명(이사 35명, 감사 2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임됐다.

한편 한준호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5개로 고시해 운영 중인 기술기준을 하나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KEPIC의 5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회장은 전기기술 국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10일 전기의 날을 전후해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워크숍과 올해부터 매년 ‘한·일 전기기술 컨퍼런스’를 상호 개최해 양국간 기술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전기협회는 국제기준의 도입에 따른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의 보완 개정 등 신기술 기준 유지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공중의 안전’, ‘전기설비의 안전 및 전기사업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제41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2월 16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경영환경 향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 회원사 시장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정보지원 서비스 강화, 업계 및 협회 내부역량 강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 수요창출을 위한 회원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 다변화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전철화사업, 전력IT 사업 등 신 수요분야를 개발하고 타업종과 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업계의 생존기반이 걸려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이행기반 구축에 총력키로 했다.

회원서비스 및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신기술·신공법 개발 보급 및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타 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수급체계를 수립키로 했다.

또 시공능력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 제도 등 공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 회원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업 진흥시책 추진을 통해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회원사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정 및 퇴출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업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와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